

# 빛가람혁신도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높여야

### '이전기관 노동자가 바라본 혁신도시' 신정훈 의원 등 토론회 주최 나주 정주여건 불만족 전국 3번째...KTX·시내버스 배차 개선 시급 중앙정부 투자 소극적...부동산 강매 강요 전 인프라 투자부터 해야

"이전기관 직원들에 지역 부동산 강매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교통·의료 서비스 등 개선이 시급한 정주 여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자들은 혁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투자를 지적하고 국토 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한국노총에서 열리는 '이전기관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담겼다. 장재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의장은 '노동조합 관점의 혁신도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광전노협 측은 7년차를 맞은 혁신도시 노동자의 정주여건이 한계를 지닌 원인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중앙정부 투자를 들었다.

예컨대 세종시 투자규모는 5조708억원인 반면 10개 혁신도시 전체 투자는 7998억원으로, 세종시(행복도시) 특별회계가 8조5000억원인 점을 차치하더라도 6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우선 순위를 정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장 의장은 "정주여건 개선 없이 직원들에 지역 부동산 강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멸'을 부른다"며 "사택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순환 근무자용 사택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숙소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에 따르면

이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10.5%로, 충북(11.4%)·강원(10.7%)에 이어 10개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만족한다'는 44.4%, '보통'이라는 답변은 45.1% 비중을 차지했다.

이전직원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주환경은 ▲시외버스 터미널 접근성 ▲시내버스 배차간격 ▲시외버스 운행노선·횡수 ▲철도 운행횟수·시간 ▲철도역 접근성 ▲긴급 상황 때 이용가능한 의료시설 수·접근성이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고속열차는 서울행 66회(나주역 24회·송정역 42회), 오송역(세종) 48회(나주·송정역 각 24회)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서울 102회·오송 54회)과 대구(서울 122회·오송 68회) 운행횟수를 크게 밑돌았다.

학교 공급률은 70.0%로, 전국 계획대비 평균 공급률(79.6%)에 못 미칠 뿐더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유치원 공급률(63.6%) 역시

평균(85.1%)을 밑돌고 혁신도시 중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의료시설(병·의원)은 29개소로, 전국 혁신도시 시설현황 493개소의 5.9% 비중을 차지했다. 부산 혁신도시 의료시설은 341개로, 전체의 69.2% 정도였다. 공영문화시설까지 가는 거리는 4.8km로, 충북(12.2km), 대구(7.7km), 경북(6.9km)와 함께 접근성이 열악했다.

장재영 의장은 "교통은 지자체 의지로 개선 가능하나 의료 개선은 한계가 있으므로, 혁신도시와 모(母)도시 간 접근성 강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이관문제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점은 지자체와 정치권·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사무총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기현 의원, 신정훈 의원이 주최한다. 주제 발표에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박사, 이종상 강원혁신노협 의장, 김승태 부산혁신노협 의장, 안영철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등이 나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0.16 (+33.01)
▲ 코스닥	802.95 (+10.30)
▲ 금리(국고채 3년)	0.971 (+0.036)
↓ 환율(USD)	1133.60 (-1.50)

### 이마트 '쓱데이' 고객 28% 쑥~ 생활용품 235% 매출 증가

광주지역 이마트가 자사 최대 할인전인 '대한민국 쓱데이'를 벌인 결과 1년 전보다 고객 수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점포가 '쓱데이' 행사를 진행한 10월31일~11월1일 이틀 동안 객수는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신세계그룹 17개 계열사는 사전행사가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벌인 올해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 매출이 6400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상품군별로는 하나를 사면 같은 상품을 하나 더 주는 '1+' 행사를 벌인 생활용품 매출이 235% 증가했고, 가공식품(230%), 신선식품(33%) 등도 매출이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

## 효성 조현준 회장, 스파덱스 시장 초격차 벌린다

### 600억원 투자 터키에 공장 증설 유럽 프리미엄 시장 부동의 1위



유럽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높여왔다.

특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빠른 딜리버리(delivery) ▲차별화된 맞춤형 고객 니즈 충족 ▲프리미엄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력 등에 우위를 보이며 유럽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해왔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 Wire)에 따르면 글로벌 스파덱스 수요는 연 6~7%씩 성장하고 있다.

일반 의료 섬유의 성장률이 2~3%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일상의 변화도 스파덱스의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촉발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덩달아 실내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가볍게 외출 시에도 착용 가능한 이지웨어(easywear)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지웨어 관심 증가로 신축성과 착용감을 돕는 스파덱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꼽힌다.

한편, 효성티앤씨는 1999년 중국 공장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을 위한 터키, 미국과 남미 시장을 위한 브라질, 아시아 신흥국 시장을 위한 인도, 아시아 전체 시장을 위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갖춰 대륙별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현준(사진) 효성 회장이 유럽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터키 스파덱스 공장 증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1위 스파덱스 초격차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다.

2일 효성티앤씨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2일 터키 이스탄불 인근 '체르케스코이'(Cerkezkooy) 지역에 600억원을 투자해 내년 7월까지 연산 1만5000t 규모의 스파덱스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내년 증설이 완료된 이후 터키 스파덱스 공장 생산능력은 기존 1만5000t에서 약 4배 상당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증설은 최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의료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스파덱스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현준 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럽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섧다운이 지속되자 생산량을 줄이고 신제품 출시를 연기해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성티앤씨는 이번 증설로 회복중인 750조 규모 글로벌 섬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회장은 "유럽 고객들의 생산기지가 되는 터키를 중심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의 세계 1위 위상을 굳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효성티앤씨는 지난 2008년 터키에 생산기지를 건립한 후 두 차례 추가증설을 거치는 등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실리콘 소재 식기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8층 '알렉사' 임시매장에서 환경호르몬 우려를 줄인 100% 실리콘 소재 식기·위생용품 등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전,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 신설

###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감)은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 재생에너지 적기접속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발전 설비 여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유 정보 공개시스템'을 한전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태양광 및 풍력협회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과 최소 월 1회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한전은 공기 단축, 용량 상향 등을 통해 내년까지 접속 지연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10월 1MW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을 시행한 이후 단기간에 14.4GW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현재 4.2GW가 접속대기 상태다.

한전은 앞으로 접속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송배전설비를 미리 건설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분산형 전력설비(소규모·소용량)를 신재생발전소 인근에 건설하는 등 선제적인 계통보강 체제로 전환한다.

또 시설 설비의 재생에너지 수용률 확대를 위해 선접속·후제어, 계획기준용량 적용 등 관련 제도 및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